

SK케미칼, 울산공장 조성 “차질”

공장부지에 문화재 보호구역 포함 ... 정밀화학·복합소재 생산 예정

SK케미칼의 울산공장 조성이 차질을 빚고 있다.

SK케미칼은 울산에 해양 매립토지 4만㎡를 포함한 총 12만3000㎡ 면적의 공장부지에 2015년까지 6000억원을 투자해 정밀화학 및 복합소재 등 그린케미칼 분야의 공장을 건설하는 내용의 투자양해각서를 2011년 3월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검토단계에서 해양 매립토지 4만㎡ 가운데 7000㎡가 처용암 문화재 보호구역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처용암은 공장부지 북쪽 해안에 위치한 작은 바위섬으로 처용설화와 관련이 있어 울산시가 1997년 시 기념물 4호로 지정하고 상류 쪽 300m와 하류 쪽 600m의 육지와 바다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제정한 바 있다.

울산시 문화재 심의위원회가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불가한 것으로 2011년 12월 결정함에 따라 SK케미칼은 매립 예정부지 4만㎡ 가운데 문화재 보호구역이 포함된 부지를 제외하고 실시설계 승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케미칼 관계자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돼 사업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며 “부지를 줄여 공장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1/05>